

영민이의 꿈



안명기
시인·수필가

나는 이쁜 새벽 인력시장으로 갑니다. 나이가 많아 인건비가 많은 곳으론 팔려갈 수가 없습니다. 일당이 남들보다 적은 허드렛일을 하는 곳으로 팔려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런 일도 없어서 허탕 치는 날이 많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 평생을 힘든 육체노동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내도 교통사고 나기 8년 전까지는 맞벌이를 했습니다.

맞벌이라고 해봐야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일 년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큰 고민에 쌓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흰머리가 나고, 얼굴에 잔주름이 늘어나서 그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고2 올라가는 아들 영민이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 자산이 미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십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난이 이렇게

한스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영민이 여섯 살 때 IMF라는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불경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오자, 하루아침에 부동산 건설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공사장에서 조적공 반장으로 일하던 나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하루하루 날풀파는 공사장 임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일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생활일 1년이 지나자 생활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 졌습니다. 몸이 허약했던 탓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아내는 자신이 가정에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긴 한숨만 내쉽니다.

“여보, 나 왔어.”

오늘도 일거리를 찾아 아침부터 나갔다가 허탕치며 들어오며 하는 말입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조금 전 마셨던 술 냄새가 방 안 구석구석을 떠듭니다.

“아니, 나 왔대도.”

퉁퉁 부은 듯한 아내의 얼굴을 보며 통명스럽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제야 아내는 고개를 듭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영민이도 타면 하나 먹고 이때까지 아빠 기다리다가 이제 막 잠들었어요.”

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피우다 만 꽁초에 불을 뱕깁니다.

그러자 아내가 쟁쟁하게 낚아채며 매섭게 쏘이불입니다.

“담뱃값하고 술값은 매일 어디서 나와요?”

“그동안 나한테 신세 진 사람들이 몇 있다고 했

공사장에서 조적공 반장으로 일하면 나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하루하루 날품파는 공사장 임부로 전락했습니다.

잖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어려운 시기에...”
아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방 한구석 작은 냉장고에서 먹다 반쯤 남은 소주병을 꺼냅니다. 아내는 소주병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경기만 풀리면...”
아내는 자리에 벌써 주저앉으며 울음 섞인 소리로 말합니다.
“경기 그게 언제 풀릴 줄 알고? 또 당장 내일부터는 어떡하고?”

“....”

나는 소주를 얻거푸 두어 잔 비웠습니다. 아내는 끝내 술잔을 확 낚아챕니다.

“여보! 내 말을 듣기나 하는 거예요?”

“....”

잠시 침묵이 흐르자 아내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내 곁으로 바짝 다가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말을 할 때면 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아내는 내 손을 잡아당기며 조금 전과는 달리 애원하듯 입을 엽니다.

“저어... 당신 선배... 그러니까 저... 양계장 한다는...”

내 미간이 찌푸려지며 음성이 높아집니다.

“그 선배가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내는 내 손을 더욱 바짝 잡아당깁니다.

“그게 말이야... 그 선배한테 전화가 왔는데 농장일 꼭 좀 도와달래. 아주 급한가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건.”

아내의 음성이 높아집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일할 수 있고, 집도 준다는데... 그 잘난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시끄러워! 되는 말을 해야지.”

“왜요? 우리가 먼저 말한 것도 아니고, 벌써 1년 넘도록 도와달라고 매달리는데. 그리고 전에 당신이 그 선배한테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없어요? 그 선배 빈둥빈둥 놀 때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채워준 게 얼마나 되는데...”

“그... 그건.”

아내는 더욱 다그치듯 음성을 높입니다.

“그건 뭐요? 말해 봐요. 왜 말을 못해요? 당장 내일이면 우리 영민이 타면 하나도 못 먹일 처진데... 쥐뿔도 없이 알량한 자존심만 내세우면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

더 이상 막무가내로 반대만 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공사판에서 알고 지내던 그 선배는 나보다 일곱 살이 많았으며 몸이 허약해서 공사장 일을 꾸준히 할 수가 없어서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채워주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양계농장을 하는 집 무남독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선배보다 세 살이나 많았고, 결혼에 한번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계속>